





지난 2011년 독일의 코블렌츠는 격년으로 열리는 원예전시회인 '연방정원 박람회'의 부지로 선정되었다. 이에 Dethier Architectures가 디자인한 전 망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많은 구조물들이 이 전시회를 위해 건설되었고, 이 전망대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연방정원박람회가 대규모 행사라서 코블렌츠 시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했다. 우선 준비과정으로 모젤 강과 라인 강의 접점이 내려다보이는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요새에 세워질 전망대 건축을 위한 국제 공모전이 거행되었다. 이 요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 는 명소로 두각을 나타냈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 전망대는 질서 정연하면서 최신 기술의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비전을 제시하였고, 환경적인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켜 자연을 중시하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을 존중하는 올바른 해결책으로는 거품 없는 소박한 디자인 방식이 될수 있는데, 이 전망대는 그러한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코블렌츠의 상징물로 설 수 있었다. 또한 건축가는 각 방문객으로 하여금 이 환경과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미송과 다른 자재의 선택과 특히 부지의 형태에 대한 조사는 이 '건축적 오브제'로 하여금요구되는 관심사를 포용하게 했다. 이 구조는 규모가 큰 건축물로서 멀리서도 보이지만 그 세련미와 수평성은 계곡의 풍경 속으로 조화롭게 통합된다. 주변 공원의 특징들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준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이 부지의 역사적 특징을 존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달라고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요새와 정원에 난 길들을 반영하기 위해라인 강과 모젤강이 만나는 도이체스에크와 계곡 위로 전망대의 위치가 결정되었고, 캔틸레버된 삼각형의 디자인이 선정되었다.

이 전망대는 코블렌츠가 내려다보이는 고원에 위치하며, 가운데가 비어 있는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한정된 이동성으로 방문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는 공원, 도시 그리고 전망대 그 자체의 전경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전시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갤러리로부터 지붕까지 이어져 있다.

캔틸레버는 이 프로젝트를 상징하는데, 계곡 위로 15m 이상 뻗어있고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솟아 있다. 구조물과 통로 건축을 위한 원목, 구조적요소를 위한 코르텐강(내후성강판)과 같은 자재의 선택은 전체적인 구조가조립식으로 건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적 연구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학의 결합은 방문객을 역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가벼운 구조를탄생시켰다. 측면의 트러스는 모자이크 형태의 외형을 가능케 했고 구조를비교적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한 요소이다.

설계 · Dethier Architectures

위치 · Koblenz, Germany

구조공학 · Ney & Partners

면적 · 675m²

취재·권연화 | 사진·Thomas Faes & Polizeiprasidium





































